

오피니언

光日春秋

한승헌



연말의 대선 등 정치기사에 치어서 크게 부각은 안 되었지만, 박사학위를 둘러싼 온갖 비리를 알리는 기사가 내 마음을 또 한번 어둡게 하였다. 모 체육대학 강사로 일해 온 아무개 씨가 그 학교의 박사과정을 둘러싼 급품 거래와 논문 대필 등 비리 내막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지도급 인사들도 여러 사람 연루되어 있다. 예사롭지가 않다. 미술계 종진인 유명한 화가 한 분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도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졌다. 그런 보도 내용을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박사 학위를 둘러싼 불미한 행태가 적지 아니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

표절과 대작(代作)이라는 속임수

심 봉사 개천 나무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박사라는 '명예'가 문제의 근원이다. 그리고 정당한 노력과 성과 없이 가짜를 탐하는 그 허욕이 문제다. 그러지 않고서야 체육인이나 미술인까지도 굳이 그런 시비의 여지를 무릅쓰고 박사가 되려고 할 리가 없다. 심지어 성직이라 할 목사들 중에도 편법 내지 가짜 박사가 적지 않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거기에는 표절이나 대필이 으레 한 몫

을 하기 마련이다. 표절은 남의 글을 훔쳐다가 제 것처럼 써먹는 문화절도행위다. 대필은 남을 시켜서 대신 글을 쓰게 하는 수법으로서, 대개 특수관계나 금전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표절하는 만큼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한층 더 나쁘다. 그밖에 여러 가지 비법이 작용한다. 석, 박사의 92%가 논문 부정을 저질렀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는 통계도 나왔었다.

저작권법 분야를 공부하는 나로서는 올해에 적지 않은 충격을 경험했다. 일년 내내 저작권 관련 기사가 매스미디어를 장식하였다. 그 중에는 예프리에이협상에 연관된 저작권법 개정 논의나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분쟁 대응 등 전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낯부끄러운 구시대적 고질도 만만치 않았다. 표절과 대작의 처벌이 언론과 사회의 일대 관심사로 부각되어 심지어 대대적인 토피뉴스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부총리나 대학 총장 같은 고위직 인사의 표절 의혹에 대한 용단폭격식 성토 기사는 우리나라 저작권 풍토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고위직)을 누르려는 데 저작권문제를 악용한 선례도 남겼다. 우선 특정 인물들이 고위직에 오르기를 전후하여 표절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들이 그 자리를 물러나자 공세는 그날로 중단되었던 것이다. 표절 문제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보다는 마땅치 않은 상대방에 대한 요격용 신병기로 위

식적인 이야기일 뿐이어서 효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득이 타율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어떤 종류이든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인사상으로서나 행정상으로서나 그래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근자에 한국행정학회가 학술논문 표절방지규정을 마련하여, 만일 표절이 밝혀질 경우에는 공개사과, 5년 이하 학회지 기고 게재 금지, 회원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하나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또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저작권 존중에 대한 계몽교육을 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오는 새학기부터 '학문과 과학 연구윤리' 과목을 신설하여 전교생(학부)의 교양과목으로 수강을 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학이나 연구단체 및 조직에서도 모범이 될만한 선례라고 할 것이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화적 절도와 문화적 사기행위가 뿌리 뽑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장, 위계, 위선 따위는 자신을 속이면서 세상을 속이는 중첩적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 때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무슨 이득을 얻는지 몰라도, 마침내는 실체가 드러나 엄청난 재난으로 되돌아온다는 인과법칙을 알아두어야 한다. <변호사·범법업인 광성>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미국을 방문했던 독자들은 이곳 사람들은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본인이 똥똥하다고 해서, 또는 키가 작거나 지체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물론 이들을 대하는 시각도 평범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생활 형편·복장·직업·학력·가문 등도 주변에서 어떻게 비춰질 지 여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델 등의 특수한 직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행에 민감하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때 문인인지 남과 다른 독자적인 개성이 인정받는 사회인 것 같다. 한국은 어떤가. 해외에서 살다가 고

한국인은 유독 이 근거본능이 강한 민족이다. 자기만의 개성이 노출되면 어쩐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집단에 묻혀 다른 사람과 함께 감으로써 불안감을 줄이려는 현상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내에게는 내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만 내 옆 그 사람에게서 내가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빨간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빨간 구두를 사야 되는 바보같은 악순환을 답습할 필요가 있을까. 이 관계가 확실히 이해된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는 피곤한 유행 따르 기 경쟁이 중단될 것 같은데 그 이치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고: 윤성석. 대선과 로스쿨 유치. 한국정치의 계급화와 대중정당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올해 대선이 야당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제반 지역정책에서 특별히 국가균형발전본의 향방이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곧 인쉬우 활동이 시작되고 몇몇 정책영역에서 참여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당당하게 '나'로 살자. 60억 인구나에서 '나'는 오직 하나 뿐이다. 당당하게 '나'로 살지 못하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모방하려 애쓰는데, 대체 누구를 표준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되려는지 모르겠다.

방향은 '또 다른 나'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기 중 꼭 짜여진 학교생활에 몰과 마음이 묶여 있던 교사들에게 방향은 더없이 기대되고 소중한 자유시간이다. 방학은 충분한 휴식과 자유로움을 누릴과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 성숙을 위해 자신의 취미나 소질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전공 과목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목포항 물동량 급증 시설 확충 서둘러야

목포항의 물동량이 연말까지 1천200만톤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개항 110년만에 '1천200만 시대'를 얻었다. 하지만, 목포항 물동량 처리능력은 연간 1천300만에 불과해 당장 내년부터 화물체제가 우려된다. 목포항이 서남해안 시대 거점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이다. 목포항은 지난 2004년 637만톤의 화물을 처리한 데 이어 2005년 759만4천t, 2006년 897만9천 t 등 물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이제는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활성화로 철강류 물동량이 20% 이상, 자동차 및 목포~제주 연안 화물이 1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들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물동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목포항의 물동량 처리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현재 목포항은 대불부두 2선급 3개 선석과 신항 민자부

두 3선급 3개 선석 등 총 7개 선석에서 연간 1천300만t을 처리하고 있다. 물동량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당장 내년 부터 화물체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당량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삼학부두가 삼학도 복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폐쇄될 예정이어서 화물체제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목포항이 서남해안 개발시대의 거점항이 되기 위해선 물동량 처리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조선산업 클러스터 및 무인공업도시 조성, J프로젝트 등 서남해안 개발이 본격화되면 목포항을 이용한 물류 급증은 불가피하다. 모처럼 맞은 서남권 발전 기회가 항만시설 부족으로 차질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항만시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신항 2단계 건설사업의 조기완공과 대불산단~목포신항 간 산업철도 구축 등 항만시설 확충을 지극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협오'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기관 신뢰도

입법·사법·행정 등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협오'에 가까울 정도로 고한다. 26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된 논문과 기획예산처 응용보고서에 따르면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년 전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어쩌다 한국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 지 안타깝다. 국가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 법원 등이 '협오' 수준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다.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지 못하면 사회통합이나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 도약도 불가능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신뢰 비율은 1996년 62%에 달했으나 2003년 26%, 2007년 33%였다. 정부 공직자에 대한 평가도 바닥 수준이다. 대부분이 부패했다 51.6%, 거의 법을 안 지키다 68.3%,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71.4%, 국민이 낸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 60.0% 등 부적

無等鼓. "공무원 조직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끊임없이 증가한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얘기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다. 영국의 정치 역사학자인 파킨슨은 영국 해군을 예로 들었다. 군함 수는 줄더라도 해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급증하고 썸슴이도 커졌다는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보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details.

▲김인숙·광주시 북구 북동